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A study of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in Establishing Ego-Identi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이희정(Hee-Jeong Lee)* · 박옥화(Oak-hwa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5. 자료분석 방법 |
| II. 연구방법 | III. 분석 및 결과 |
| 1. 연구대상 | 1. 분석 |
| 2. 측정도구 | 2. 결과 |
| 3. 도서선정 | IV. 결론 |
| 4. 연구절차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생 중 자아정체감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실시하여 자아정체감 정립에 독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이 자아정체감 정립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으며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참고봉사의 하나로서 독서지도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 독서요법, 자아정체감, 독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in establishing the ego-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se ego-identity develops most greatly during the university days. First, this study will verify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in developing the ego-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ly, this study will verify the necessity of reading guidance as one of the active reference services of the university library.

Key Words : Bibliotherapy, Ego-identity, Reading

* 고려대학교 서창학술정보원 사서(hj@kuslib.korea.ac.kr)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wpark@hanbat.chungnam.ac.kr)

· 접수일 : 2001. 8. 18 · 최초심사일 : 2001. 9. 3 · 최종심사일 : 2001. 9. 15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가치관의 확립, 자아정체감의 정립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청년기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성취하지 못한 채 부적응하거나 갈등을 겪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개인의 정체성 정립에 필요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지적 모험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입시교육에서 해방된 대학생들은 압축된 자기 정체성 정립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들에게 시행착오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좌절과 성취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Woolf는 “해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새로 읽고 그때마다 감동을 글로 남기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들의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인생 경험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인생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해석도 그만큼 더 절실하게 와 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 또 Manguel은 「독서의 역사」에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쿠오레」에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적고 있다.³⁾ 이처럼 독서는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게 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독서요법이란 그리스어의 *biblion*(book=도서)과 *therapia*(treatment of disease=치료)의 복합어에서 나온 말로,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보면, 웹스터 사전은 ① 의학과 정신 의학에서 선정 독서 자료를 질병치료를 위한 보조제로 이용하는 것, ② 지시적 독서를 통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Hart⁴⁾는 독서요법에서 카운셀러나 사서는 지시 독서를 통하여 개인의 문제해결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Hebert⁵⁾는 독서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토론, 역할 연기,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으로 독서요법을 성공

1)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제 4권(1999.3); 이영희 외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9권(1996.3).

2) Alberto Manguel 저,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 서울: 세종서적, 2000. p. 19.

3) Ibid.

4) Merrily F. Hart, "Bibliotherapy and the Judaica Children's Librarian", *Judaica Librarianship*, (Fall/Winter, 1987-1988), p. 56.

5) Thomas P. Hebert, "Meeting the Affective Needs of Bright Boys Through Bibliotherapy", *Roepers Review*, Vol.13, No.4. pp. 207-212.

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생 중 자아정체감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실시하여 자아정체감 정립에 독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이 자아정체감 정립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며,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참고봉사의 하나로서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있다.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독서요법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 가운데서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정하였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 재학중인 1,2,3학년 학생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100명에게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100명중에서 독서요법을 원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28명을 선발하였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각각 14명씩 나누었고 남,여 비율도 14명씩으로 나누었다. 실험집단 14명을 다시 학년과 성별을 고려하여 7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1> 연구대상 분포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집단1	집단2		
남	4	3	7	14
여	3	4	7	14
계	14	14	14	28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김형태가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⁶⁾를 사용하였다.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는 Rasmussen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와 Rosenthal 등이 만든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형태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5영역으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당 1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나누어지고 점수는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긍정문항과 합산하였다. 가능점수는 15점에서 60점까지이다. 크론박 알파계수는 $\alpha .80$ 이다.

<표 2>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내용

하위영역	개요
신뢰성	시간적 전망, 타인과의 신뢰감, 좋은 기회의 상실감
자율성	자기확신, 자율감, 수치에 대한 두려움
솔선성	가족이나 자기의 생육과정에 대한 혐오감, 집단에서의 역할실패, 솔선성
근면성	성취에 대한 노력, 경쟁의식의 과잉, 일에 대한 집중력
정체감	심리사회적 건전성, 자아개념과 타인의식 일치도, 계획성, 목적의식 및 진로에 대한 이해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각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자아정체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하위구성영역으로 규정한 다음 그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Dignan의 연구와 서봉연의 연구를 검토하여 김형태가 하위영역을 재조정하여 6개의 하위영역과 하위척도 10문항을 첨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영역에 각 영역마다 10개 문항씩으로 총 6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⁷⁾ 채점방식은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와 같으며 가능점수는 각 영역마다 10점에서 40점이다. 크론박 알파계수는 $\alpha .80$ 이다.

<표 3>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내용

하위영역	개요
안정성	· 시간적 경과, 유동적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자기인식
목표지향성	· 자기의 인생목표, 행동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행동선택 능력
자기존재의 독특성	· 자신의 심리, 사회적 제반특성과 타인과 비교되는 자기속성의 이해
대인관계 역할인지	·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기수용	·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함
자기주장	· 사회적응력, 타인의 기대에 구애없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할 수 있음

6) 김형태, 『青少年期 自我正體感의 發達 및 測定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1989, pp. 53-55.

7) 김형태, *op. cit.*, pp. 53-55.

3. 도서선정

<표 4 > 독서자료 목록

번호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해제
1	Kafka, Franz; 이주동 역	변신	서울:솔, 1997.	현대인의 자기소외 과정을 충격적으로 묘사, 자기성찰의 독백을 표현하고 있다.
2	Kazantzakis, Nikos; 이윤기 역	그리스인 조르바	서울:열린책들, 2000.	호쾌하고 농담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3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서울:돌베개, 1998.	저자의 옥중 서간문
4	오토다케 히로타다; 전경빈 역	오채 불만족	서울:창해, 1999.	선천성 장애인인 저자의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인생 자서전
5	Gray, John; 김경숙 역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친구미디어, 1993.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성역할에 대한 사례를 통한 에세이
6	Fromm, Erich;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서울:문예출판사, 2000.	저자의 사랑에 대한 철학과 사상
7	Peck, M. Scott; 김창선 역	끝나지 않은 길	서울:소나무, 1993.	성숙한 인간으로 이끄는 정신과의사의 상담, 치료 과정의 결과물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8	Norberg-Hodge, Helena; 김종철/김태연 역	오래된 미래	서울:녹색평론사, 1996.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작고 건강한 공동체인 라다크를 소개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9	Csikszentmihalyi, Mihaly; 이희재 역	몰입의 즐거움	서울:해냄, 1999.	몰입을 통한 행복한 삶을 제시한 자기개발서
10	Saint-Exupery, Antoine; 전성자 역	어린왕자	서울:문예출판사, 1999.	순수한 영혼을 지닌 어린왕자를 통하여 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독서요법을 위한 도서선정은 대학생들이 읽기에 부담이 없고 그 수준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것으로서 정체감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았다. 도서선정을 위해 상황별 도서목록⁸⁾, 한국의 젊은 지성 117인이 권하는 스무살이 되기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 2⁹⁾ 중앙일보가 선정한 2000 좋은 책 100선[대학일반부]¹⁰⁾, '한겨레 도서정보'¹¹⁾ '90년대의 책 100선(교보문고), 동아일보 화제의 책¹²⁾ 등을 참조하였다.

8) 한국도서관협회, 『상황별 도서목록-아동·청소년 편』.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9.

9) 이학성, 『한국의 젊은 지성117인이 권하는, 스무살이 되기전에 꼭 읽어야 할 책 III』. 서울 : 하늘연못, 1999.

10) http://www.joins.com/series/sl_451.html.

11) http://www.hani.co.kr/infosvc/fr_book.html.

4. 연구절차

1) 본 연구를 위하여 독서요법지도를 실시하기 전에 선발된 28명의 학생들에게 김형태(1989)가 제작한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와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척도 검사 실시 후 연구대상자들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실시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3) 독서요법을 끝내고 실험집단, 통제집단 모두에게 독서요법지도를 실시하기 전의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를 재실시하였다.

4) 독서요법실시

① 독서요법 기간은 10주동안 주 1회씩 토론의 정도에 따라 90분에서 120분의 독서요법을 실시하였다.

② 독서요법은 집단지도 형태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험집단을 7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5) 독서요법 집단 지도 실시

① 대략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절차는 먼저 다음주에 읽게 될 텍스트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토론할 문제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를 내 주었다.

② 독서를 한 다음 10-12줄 정도의 소감을 e-mail을 통하여 받았고 독서노트를 준비하여 소감과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③ 실제 모임을 할 때에는 우선 소감을 모두 3분 정도 돌아가면서 발표 하였고 전 주에 내 준 문제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④ 단 텍스트에 대한 비평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도록 권장하였다.

⑤ 토론 중간 중간에 자기 수용이나 자기 긍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하였다.

⑥ 좋은 문장이 있으면 낭독하였고 때로는 암송도 하였다. “몰입의 즐거움”은 마음에 드는 장을 3개씩 골라서 간단하게 요약 시켰다. 5회째의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하여 9회째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토론하였더니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이 되었다.

12) <http://books.donga.com>

독서요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차 : 독서요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① 자신 소개
- ② 독서요법 프로그램 소개
- ③ 책을 잘 읽는 법 소개 : 독서과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매우 가치있는 기법으로 Robinson(1970)의 SQ3R방법¹³⁾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읽기와 공부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섯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꼭 이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참조하면서 독서하도록 권장하였다.
- ④ 다음 주에 읽을 텍스트 소개 : 텍스트의 개괄적인 내용 소개와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였다.

2차 : 변 신 - Kafka, Franz ; 이주동 역

텍스트를 읽은 전체적인 소감을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발표하였고 지난 주에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돌아가면서 발표하였다.

- 문제 : a. 주인공은 왜 갑충으로 변화하였는가?
b. 주인공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c. 주인공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d.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는 어떤 세계인가?

토론 내용 : 첫 번째 토론이어서인지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진지한 토론이 되었다.

13) Wayne Weiten 저, 김시업 역, 『생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 문음사, 1994. pp. 63-64.

단계 1 - 개관(survey) :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그 장의 주제를 한 번 훑어보고 자료의 대체적인 개략을 얻고자 노력하며 그 장의 여러 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고 개요 혹은 요약이 있다면, 그 장의 대체적인 감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참조하라. 당신이 읽으려고 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 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필요가 있다.

단계 2 - 질문(question) : 첫 절의 제목으로 보고 그것을 질문으로 변화시켜라. 제목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라면 당신의 질문은 '스트레스의 근원은 무엇인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당신이 독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도록 해준다.

단계 3 - 읽기(reading) : 셋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읽을 준비가 되었다. 당신이 방금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그것을 읽어야 한다.

단계 4 - 암송(recite) :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니 그 답을 자신의 언어로 크게 소리내어 암송하라. 본문의 단순한 기억이 아닌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 5 - 복습(review) : 한 장을 읽었을 때 핵심사항으로 되돌아가서 기억을 확인해 보고 생생하게 하라. 질문을 반복하고 책이나 요점 정리에 의존하지 말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라. 복습은 주요 내용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상호간의 종합적인 관계성을 알도록 도움을 준다.

토론에서 나왔던 단어들은 현실도피, 자기존중감, 이상과 현실 등이었다. 텍스트가 좀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3차 : 그리스인 조르바 - Kazantzakis, Niokos ; 이윤기 역

- 문제 : a. 조르바는 어떤 인물인가?
b. 나는 어떤 인물인가?

토론 내용 : 우선 충격적인 텍스트였다는 소감과 함께 주인공 조르바의 순수한 열정과 자유스러운 삶의 형태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더욱 좋아한 텍스트였다. 소감과 토론을 마치고 내가 나에게 대하여 좋아하는 다섯 가지와 싫어하는 다섯 가지를 노트에 적게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구성원들간에 더욱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4차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신영복

- 문제 : a. 오랜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b. 그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자.
c.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

토론 내용 : 감옥이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저자에게 감동받고 단순한 일상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한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본받을 만하다는 소감이 많았다. 좋은 구절이 많아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돌아가면서 낭독하였다. 또한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다섯 사람, 싫어하는 다섯 사람, 좋아하는 장소 다섯 군데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5차 : 오체 불만족 - 오토다케 히로타다 ; 전경빈 역

- 문제 : a. 어떻게 살 것인가?
b.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c. 나는 어떤 사람인가?
d.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 내 마음의 장벽은 무엇인가?

토론 내용 : 선천성 장애인인 저자는 정상인보다 더욱 밝고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으며, 장애인이 소외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 컸다. 비교적 쉬운 자서전이었던 이야기는 많았고 오히려 저자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회의와 좌절부분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전반적인 평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감동이 컸다. 나를 웃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울리는 다섯 가지를 역시 노트에 적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긍정적 삶, 자기 사랑, 사회적 통념, 장애인의 환경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문제가 좀 어려워 쉽게 답이 나오질 않아 계속되는 모임에서 하나씩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였다.

6차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 John Gray ; 김경숙 역

- 문제 : a.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하여
b. 당신의 성 역할에 대하여

토론 내용 :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남녀의 차이를 텍스트를 통하여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서로의 행동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텍스트에 나온 사례대로 직접 행동해 보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고학년일수록 공감도가 컸고 저학년에서 서로 다른 성에 대하여 질문이 많았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같은 여자들끼리 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남자들은 질투가 정말 많은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가장 긴 시간동안 토론을 했을 만큼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7차 : 사랑의 기술 - Erich Fromm;황문수 역
끝나지 않은 길 - M.Scott Peck;김창선 역

- 문제 : a. 사랑이란?
b.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토론 내용 : 좀 황당한 질문 같았지만 한번도 정리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트에 적어보고 소리내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정리가 되었다는 의견과 남녀간의 사랑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치면서 좋은 문장을 돌아가며 낭독하였다.

8차 : 오래된 미래 - Norberg-Hodge, Helena ; 김종철/김태연 역

문제 : a. 라다크는 어떤 곳인가?

b. 인류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c.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토론 내용 : 현대화, 환경문제, 산업화, 진정한 행복,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편하게 읽히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텍스트였다는 평이었다.

9차 : 몰입의 즐거움 - Mihaly Csikszentmihalyi ; 이희재 역

문제 : a. 나는 어떤 사람인가?

b. 마음의 장벽

토론 내용 : 5차째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토론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
가 있었다. 또 서로에 대한 첫인상과 느낌을 말해 주어 스스로 느끼지 못
했던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번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몰입
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잘 썩여져 있어서 각자 마음에 드는 장을 3장
씩 요약하도록 하였다.

10차 : 어린왕자 - Antoine De Saint-Exupery ; 전성자 역

문제 : a. 좋은 문장 암송하기

b. 독서프로그램을 마치며 소감 써 오기

토론 내용 :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빠른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한번쯤은 읽었
던 책이지만 대학생이 되어 다시 읽어보니 느낌이 많이 달랐고 '순수'와
'우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삼십대
가 되어서 그리고 사십대, 오십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는 의견
이 많았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모든 변수 즉 집단, 성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교호작용이 있는 공분산

분석(ANOCOVA), two sample t-검정, paired t-검정으로 집단간의 차이와 개인간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통계처리는 SAS 8.0을 사용하였다.

III. 분석 및 결과

1. 분석

첫 번째 연구가설은 독서요법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이 사전검사,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표 5>은 두 집단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집단 간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t-검정의 결과이다.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은 각 하위영역당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나누어지고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긍정문항과 합산하면 가능 점수는 15점에서 60점 까지이다.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은 하위영역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로 가능 점수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유의수준을 0.05로 보았을 때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근면성이 평균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그 외의 하위영역에 대하여는 각 집단간 평균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검사의 차이에 대한 t-검정

정체구분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값 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달 단계형 자아 정체감 척도	신뢰성	46.143	1.2529	46.786	1.3391	-0.35	0.7288
	자율성	43.429	1.7088	42.286	1.4275	0.51	0.6121
	솔선성	42.429	1.8597	41.857	1.5401	0.24	0.8148
	근면성	46.500	0.6533	41.214	0.2062	2.58	0.0158
	정체감	40.071	1.2816	39.357	1.2207	0.40	0.6898
구성 요인형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정성	25.857	0.8042	26.357	1.0567	-0.38	0.7096
	목표지향성	28.571	0.8877	30.071	0.8862	-1.20	0.2426
	자기존재의 독특성	28.071	0.7736	28.214	0.5663	-0.15	0.8827
	대인관계 역할인지	28.643	1.585	28.714	1.0815	-0.04	0.9706
	자기수용	26.714	1.1311	27.571	1.3248	-0.49	0.6268
	자기주장	27.143	1.037	27.214	0.8967	-0.05	0.9588

p < .05

타났다. 즉, 비교대상인 통제집단과 조사대상인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해 독서요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독서요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공분산분석(ANOCOVA)을 통하여 집단간의 효과를 알아 보았고 성별변수를 넣어서 남녀간에 독서요법의 효과 차이를 밝혀냈다. <표 6>와 <표 7>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독서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공분산분석으로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후에 실험집단에 의한 효과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전검사(X), 실험 및 통제집단을 나타내는 변수(T), 이러한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사후검사(Y)를 반응변수로 한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독서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값을 실험집단 1, 통제집단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의 값이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척도에서는 신뢰성(28.0619), 자율성(18.9976), 정체감(21.76380)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후검사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에서는 대인관계 역할인지(11.1826)의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독서요법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6>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의 집단간 효과에 대한 공분산분석

정체구분	하 위 영역	최 중 모형			p-값 ³⁾
		변 수 ¹⁾	계 수	p-값 ²⁾	
발달 단계형 자아 정체감	신뢰성	X	0.69381	0.0018	0.0008*
		T	28.06186	0.0197	
		X·T	-0.54431	0.0329	
	자율성	X	0.86864	0.0001	0.0001*
		T	18.99759	0.0183	
		X·T	-0.39122	0.0340	
	술선성	X	0.93580	0.0001	0.0001
		T	16.15851	0.0781	
		X·T	-0.33957	0.1131	
	근면성	X	0.83653	0.0001	0.0001
		T	11.06452	0.3385	
		X·T	-0.27774	0.2979	
정체감	X	1.08717	0.0001	0.0001*	
	T	21.76380	0.0370		
	X·T	-0.50725	0.0507		

p < .05

- 1) X : 사전검사 Y : 사후검사
- T : 독서요법의 효과 (실험집단 1, 통제집단 0)
- G : 성별 (남자 1, 여자 0)
- X·T : 사전검사와 독서요법의 교호작용(interaction)

- X · G : 사전검사와 성별의 교호작용
- 2) 추정된 계수에 대한 유의확률
- 3) 전체 모형에 대한 유의확률

<표 7>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집단간 효과에 대한 공분산분석

정체구분	하 위 영역	최 종 모 형			p-값 ³⁾
		변 수 ¹⁾	계 수	p-값 ²⁾	
구성 요인형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전성	X	0.69561	0.0046	0.0004
		T	0.73329	0.9206	
		X · T	-0.00386	0.9891	
	목표지향성	X	0.93403	0.0166	0.0004
		T	13.06380	0.1493	
		X · T	-0.39320	0.1983	
	자기존재의 독특성	X	0.82252	0.0178	0.0064
		T	8.49866	0.7333	
		X · T	-0.25531	0.5051	
	대인관계 역할인지	X	0.82148	0.0001	0.0001*
		T	11.18261	0.0319	
		X · T	-0.36592	0.0405	
	자기수용	X	0.53623	0.1110	0.0021
		T	8.72543	0.1352	
		X · T	-0.27733	0.1903	
자기주장	X	0.88970	0.0001	0.0001	
	T	4.46652	0.4873		
	X · T	-0.19116	0.4162		

P < .05

<표 8>과 <표 9>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독서요법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위한 것으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후에 실험집단에 의한 효과와 성별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전검사(X), 실험 및 통제집단을 나타내는 변수(T),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G), 이러한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사후검사(Y)를 반응변수로 한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알아 보는 모형이다. 각 상호작용의 효과도, 고려한 모형으로부터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여 나온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표 8>과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성에서 G값을 남자 1, 여자 0으로 보았을 때 여자가 -19.9479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P < 0.0195로서 남자보다 여자가 목표지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서 <가설 2> 실험 집단 가운데서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의 목표지향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0>은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후에 실험집단에 의한 효과와 성별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는 변수만을 선택한 최종 모형들이다. 각 모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더미변수인 T와 성별에 대한 더미변수인 G를 포함하며, 각 상호작용의 효과도 고려한 모형으로부터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여 나온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표 10> 모형에서 더미변수 T(독서요법의 효과)에 대한 추정계수의 값이 실험집단 1, 통제집단 0으로 보았을 때 모두 11이상으로 다른 변수의 추정계수와 비교해 볼 때 사후점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서 성별이라는 변수가 유의한 경우는 목표지향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목표지향성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견해가 차이가 있고, 그 외의 하위영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표 10>에 누락된 하위영역들은 변수 T와 G가 무의미한 순수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와의 관계로써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11>과 <표 12>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 8>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의 성별의 효과에 대한 공분산분석

정체구분	하 위 영 역	최 종 모 형			p-값 ³⁾
		변 수 ¹⁾	계 수	p-값 ²⁾	
발달 단계형 자아 정체감	신뢰성	X	0.72997	0.0122	0.0034
		T	29.71853	0.0177	
		G	6.07380	0.6282	
		X·T	-0.58070	0.0290	
		X·G	-0.16056	0.5538	
	자율성	X	0.83041	0.0001	0.0001
		T	19.62077	0.0189	
		G	-7.84978	0.3838	
		X·T	-0.40278	0.0361	
		X·G	0.15487	0.4615	
	솔선성	X	0.98223	0.0001	0.0001
		T	17.61230	0.0812	
		G	2.37295	0.8082	
		X·T	-0.37620	0.1143	
		X·G	-0.06898	0.7665	
	근면성	X	0.89943	0.0001	0.0008
		T	12.92129	0.2845	
		G	6.03171	0.5803	
		X·T	-0.31961	0.2507	
		X·G	-0.16149	0.5171	
	정체감	X	1.17874	0.0001	0.0001
		T	22.50687	0.0371	
		G	6.17911	0.5500	
		X·T	-0.52709	0.0498	
X·G		-0.17268	0.5048		

p < .05

<표 9>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의 성별의 효과에 대한 공분산분석

정체구분	하 위 영역	최 종 모 형			p-값 ³⁾
		변 수 ¹⁾	계 수	p-값 ²⁾	
구성 요인형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전성	X	0.60091	0.0002	0.0027
		T	-0.72945	0.9270	
		G	-4.18893	0.6076	
		X·T	0.04936	0.8702	
		X·G	0.13747	0.6587	
	목표지향성	X	0.80899	0.0001	0.0001*
		T	19.53390	0.0227	
		G	-19.94788	0.0195	
		X·T	-0.61255	0.0336	
		X·G	0.60751	0.0342	
	자기존재의 독특성	X	1.00249	0.0018	0.0332
		T	11.57338	0.3560	
		G	6.58460	0.5864	
		X·T	-0.36819	0.4090	
		X·G	-0.23961	0.5786	
	대인관계 역할인지	X	0.86659	0.0001	0.0001
		T	11.19541	0.0335	
		G	4.03078	0.4023	
		X·T	-0.36681	0.0421	
		X·G	-0.10983	0.5061	
	자기수용	X	0.66194	0.0004	0.0055
		T	9.23135	0.1161	
		G	5.69673	0.3304	
		X·T	-0.29442	0.1664	
		X·G	-0.16370	0.4388	
	자기주장	X	0.94806	0.0001	0.0001
		T	2.01303	0.7751	
G		7.04047	0.3233		
X·T		-0.10719	0.6751		
X·G		-0.24980	0.3324		

p < .05

<표 10> 하위영역별 선택된 모형

정체구분	하 위 영 역	최 종 모 형			p-값 ³⁾
		변 수 ¹⁾	계 수	p-값 ²⁾	
발달단계 형 자아정체 감 척도	신뢰성	X	0.6938	0.0018	0.0008
		T	28.0619	0.0197	
		X·T	-0.5443	0.0329	
발달단계 형 자아정체 감 척도	자율성	X	0.8686	<.0001	<.0001
		T	18.9976	0.0183	
		X·T	-0.3912	0.0340	
발달단계 형 자아정체 감 척도	정체감	X	1.08717	0.0001	0.0001
		T	21.76380	0.0370	
		X·T	-0.50725	0.0507	
구성 요인형 자아정체 감 척도	목표지향성	X	0.8090	0.0002	<.0001
		T	19.5339	0.0227	
		G	-19.9479	0.0195	
		X·T	-0.6126	0.0336	
		X·G	0.6075	0.0342	
구성 요인형 자아정체 감 척도	대인관계 역할인지	X	0.8215	<.0001	<.0001
		T	11.1826	0.0319	
		X·T	-0.3659	0.0405	

p < .05

- 1) X는 사전검사이고 Y는 사후검사이며, T와 G는 각각 다음을 나타내는 Dummy 변수이다. X·T, X·G 는 교호작용을 말한다.

$$T = \begin{cases} 1 & ; \text{ 실험집단} \\ 0 & ; \text{ 통제집단} \end{cases} \quad G = \begin{cases} 1 & ; \text{ 남자} \\ 0 & ; \text{ 여자} \end{cases}$$

- 2) 추정된 계수에 대한 유의확률
3) 전체 모형에 대한 유의확률

<표 11> 실험집단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t-검정

정체구분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값 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달 단계형 자아 정체감 척도	신뢰성	46.143	4.688	49.643	3.608	2.46	0.0289*
	자율성	43.429	6.394	44.714	4.304	1.07	0.3059
	솔선성	42.429	6.958	44.786	5.221	2.08	0.0576**
	근면성	46.500	6.186	44.857	4.881	-1.40	0.1854
	정체감	40.071	4.795	41.643	4.050	1.65	0.1232
구성 요인형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정성	25.857	3.009	27.214	3.118	2.03	0.0632**
	목표지향성	28.571	3.321	29.929	3.221	1.65	0.1230
	자기존재의 독특성	28.071	2.894	29.214	2.778	1.67	0.1197
	대인관계 역할인지	28.643	5.930	29.857	3.591	1.13	0.2769
	자기수용	26.714	4.232	29.571	2.533	2.76	0.0164*
	자기주장	27.143	3.880	27.143	3.438	0.00	1.0000

* p < .05 ** p < .1

<표 11>는 조사대상인 실험집단에서의 두 변인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Paired t-검정 결과이다. 유의수준 p <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척도의 신뢰성,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척도의 자기수용에 대하여 사후점수와 사전점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고, 유의수준을 0.1로 했을 때는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솔선성,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척도에서 안정성이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표 10>에서의 모형화된 영역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때, 실험집단 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독서요법 실시 후에 신뢰성, 솔선성, 안정성, 자기수용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2>는 통제집단에서의 두 변인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Paired t-검정 결과이다. 유의수준을 0.05로 했을 때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독서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 11>의 실험집단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독서요법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사후점수에서 평균의 향상이 나타난 것은 독서요법의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통제집단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의 t-검정

정체구분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값 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달 단계형 자아 정체감 척도	신뢰성	46.786	5.010	47.143	3.978	0.54	0.5974
	자율성	42.286	5.341	41.714	4.953	-1.14	0.2733
	솔선성	41.857	5.763	42.500	6.260	0.75	0.4658
	근면성	41.214	4.509	42.285	4.906	1.24	0.2353
	정체감	39.357	4.568	39.428	5.653	0.10	0.9235
구성 요인형 자아 정체감 척도	안정성	26.357	3.954	26.929	3.583	0.82	0.4245
	목표지향성	30.071	3.316	29.500	3.757	-1.00	0.3356
	자기존재의 독특성	28.214	2.119	28.000	2.828	-0.35	0.7284
	대인관계 역할인지	28.714	4.046	29.214	3.620	1.17	0.2648
	자기수용	27.571	4.957	28.714	3.517	1.31	0.2116
자기주장	27.214	3.355	27.929	3.562	1.35	0.1997	

p < .05

2. 결 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을 위하여 독서요법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집단지도 형태의 독서요법을 실시하였다. 매주 1회 90분에서 120분 정도에 걸쳐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고 노트에 정리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교호작용이 있는 공분산분석(ANOCOVA)과 two sample t-검정과 paired t-검정을 사용하였다.

1. <가설 1> 독서요법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은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05 수준에서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척도에서는 신뢰성(T=28.0619), 자율성(T=18.9976), 정체감(T=21.76380)이, '구성요인형 자아정체

감'척도에서는 대인관계역할인지($T=11.1826$)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전검사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를 제거한 후 순수한 집단간의 차이만 본 모형으로 가장 정확하게 독서요법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또한 <표 11>와 <표 12>는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해 paired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표 11>에서는 $p < 0.05$ 수준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이 $p < 0.1$ 수준에서 솔선성과 자기수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 12> 통제집단에서는 사후검사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독서요법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가설 1>이 입증되었다.

2. <가설 2> 실험집단 가운데서 자아정체감 척도 검사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표 10>의 교호작용이 있는 공분산분석 결과 $p < 0.05$ 수준에서 '발달단계형 자아정체감'척도에서는 남녀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척도의 하위변인 중 목표지향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19.9479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군입대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바로 진로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 진로와 목표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이라고 보여진다. 다른 하위변인들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가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의 목표지향성에서 유의한 결과로서 입증되었다.

IV. 결 론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정량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독서요법의 효과는 아니지만 독서를 통하여 그들이 느낀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들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다. 둘째,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다른 사람과 토론과 대화를 나눔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개성적인 생각들도 알게 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뿌듯했다.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니까 내가 말하기에 앞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노트 정리를 통해서 아직 머릿 속에서 자리잡지 못한 생각들도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느낌이었다. 셋째, 좋은 책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 전에는 소설류를 많이 읽었지만 앞으로 에세이, 자서전, 비소설류도 많이 보겠다.

넷째,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었고, 남들에게 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된 점도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의 진로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이므로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소감을 볼 때 앞으로 독서요법의 적용이 다양하게 요구되어지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는 발달적 독서요법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실시했다는 점과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독서요법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자아정체감 정립에 독서요법이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는 대학도서관 참고봉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학도서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 등을 참조하여 대학생들에 좋은 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주제별로 간단한 서평과 함께 신착 안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양서를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2) 현재 각 도서관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저널, DB이용교육 뿐 아니라 독서를 잘 하는 방법 등의 독서교육도 아울러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3) 도서관이 적극적 참고봉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독서요법을 실시함으로써 성숙된 인격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나아가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정상적인 대학생 뿐 아니라 알콜중독이나 교우문제, 이성문제, 진로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독서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독서요법 프로그램은 학생생활연구소의 전문상담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제 4권 (1999.3).
- 김형태. 『靑少年期 自我正體感의 發達 및 測定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1989. pp. 53-55.
- 이영희 외.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9권(1996. 3).
- 이학성 『한국의 젊은 지성117인이 권하는, 스무살이 되기전에 꼭 읽어야 할 책 I,II』. 서울 : 하늘연못, 1999.
- 한국도서관협회.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 편』.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9.
- Bohlmann, Norman R. *Use of RET Bibliotherapy to Increase Self-Acceptance and Self-Actualization Levels of Runn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Ann Arbor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6.
- Doll, Beth & Doll, Carol Ann.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1997.
- Hart, Merrily F. "Bibliotherapy and the Judaica Children's Librarian", *Judaica Librarianship*(Fall/Winter, 1987-1988). p. 56.
- Hebert, Thomas P. "Meeting the Affective Needs of Bright Boys Through Bibliotherapy " *Roeper Review*(Roeper City and Country School, MI), vol.13 no.4, (1991). pp.207-212.
- <http://books.donga.com>
- http://www.hani.co.kr/infosvc/fr_book.html.
- http://www.joins.com/series/sl_451.html.
- Manguel, Alberto 저, 정명진 역. 『독서의 역사』. 서울 : 세종서적, 2000.
- Pardeck, John.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 Haworth, 1998.
- Stanley, Jacqueline. *Reading to Heal*. Boston : Element Books, 1999.
- Weiten, Wayne 저, 김시업 역. 『생활적응을 위한 심리학』. 서울 : 문음사, 1994. pp. 63-64.
- Zentner, T.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and Level of Reading Ability on Self Concep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ntana. Ann, Arbor : UMI, 1974.